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31호

발행일 : 2018.11.11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이달의 간증>

-김형진 안수집사-

할렐루야~ 김형진 안수집사입니다.

저보다 더 은혜로운 간증을 해 주실 성도님도 더 많으신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온이 많이 쌀쌀하고 곡식은 무르익어 황금 들녘을 만들어가며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들마다 알록달록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단풍들은 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이 모든 자연의 섭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에 감사하는 마음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앙의 언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구별된 모습)' 입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다른 모습, 생각, 언어들로 신앙의 구별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모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들 연훈이의 모습을 보며 체험했습니다. 편입의 과정 중에 잘되지 않아서 6개월의 공백기 생겼습니다. 연훈이도 실망했겠지만 저도 실망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훈이는 바로 '주님의 뜻이야' 라며 앞으로의 학업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마음(세상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한참 동안 이 일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연훈이는 공백기 동안 일(알바)을 하며 새로운 도전과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와 열심히 일(알바)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선교사역 일정으로 해외 선교에 참여하여 영성과 신앙의 열정을 채워갔고 개인적인 여행을 통해서도 마음을 다잡아가며 미래를 계획하며 자신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업에서는 정해진 것만 범위 안에서 얻지만, 선교사역을 통하여서는 신앙의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며 학업에서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 신앙의 기쁨을 체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들 자랑 같아서 조금 부끄럽지만 연훈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철저히 지켰고 아무리 많은 보수로 주일을 유혹해 와도 타협이나 흔들림 없이 예배를 항상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6개월의 삶을 지켜본 아빠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의 확실하고 견고한 신앙의 모습과 삶의 짐을 무겁게 느끼며 세상과 타협하려던 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함과 헛되고 헛되다'를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 하면서 이러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이중적인 스스로의 모습이 아들과 가족들 앞에서 몹시도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신앙과 삶의 문제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가정이 있다면 헛되고 헛된 어른의 사회적 환경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말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올바른 교육과 훈련과 순수함으로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고 어른의 생각으로 헛되고 헛된 모습과 방법을 보이지 말아야 하며 거룩함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당진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형통하길 원하신다면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모습과 계산과 경험의 모습을 보였던 저처럼 하지 마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 맡기는 은혜롭고 지혜롭고 현숙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철저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가정과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자에는 방법이 보이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핑계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삶과 세상적인 헛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열정적인 예배의 방법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가정들이 예배를 통해 얻혀 있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알아가기



1. 집사님의 신앙 이력이 궁금해요.

저의 고향인 고흥 녹동은 부모님과 오빠들에게는 객지였어요. 아빠가 오빠들이 객지에서 잘 적응하라고 교회를 보내셨고 착한 오빠들은 신앙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아마 6~7세쯤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4학년쯤 셋째 오빠가 요즘은 수능인데 그땐 학력고사였나요? 처음으로 마그네틱 정답지가 시행되던 때였는데 뺑뺑이 나와 버렸네요. 공부 잘하던 오빠의 실수에 화가 많이 나신 아빠는 교회에서 학생 회장하다가 그랬다면서 저까지 교회에 못가게 하셨어요. 아빠 말씀이 무서워서 몰래 몰래 여름 성경학교에 가기도 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러고는 결혼과 동시에 신앙심 깊은 시어머님 손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2.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를 포함 일곱식구 거느리시느라 하루하루 심신이 많이 바쁘시지요?

네. 식구가 좀 많죠? 지금은 예진, 지은이가 따로 살고 있어서 좀 덜합니다. 같이 살 때는 정말 머릿속이 쉴 틈이 없었어요.

3. 집사님은 살림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살림에 관한 집사님의 소신이 궁금해요.

살림 전혀 못합니다. 단지 뭔가를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어서 따라 해 보고는 있지요. 부끄럽긴 한데 저는 정리도 잘 못해요.

4. 자녀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엄마로서 이 하루의 시름이 싹 씻겨짐을 느껴요. 나에게 자식이란?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살아가기 힘들 때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지탱 시켜주는 사랑입니다.

5. 어떤 자식도 부모 속 제대로 알아주는 자식은 없지요. 집사님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누구일까요?

통과요. 제가 아파한다는 거 알면 더 힘들어 할 거 같아요.

6. 아들 순관이가 멋진 학생으로 커가고 있어요. 집사님의 아들에 대한 비전이 궁금해요.

몇 달 전에 주일 설교 말씀 중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위대하게 여기기에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넣을 정도라 하셨죠. 저는 그날부터 순관이가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순관이가 자신의 싸인을 만들었다고 보여주는데 이름 옆에 별을 그리더라구요. 왜 별을 넣었느냐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성이 통한 거겠죠. 이렇듯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곳으로 인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7. 독서를 좋아하세요? 이 가을에 기억나는 책이 있으신지요?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참 많이 샀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안된다는 핑계로 거의 읽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주의 시를 좋아하는데 ‘서시’와 ‘별 헤는 밤’을 특히 좋아합니다.

8. 집사님은 라이프지를 발행하고 있는 문서위원회에서 맹활약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변독이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라이프지 코너를 생성시키기도 하지요. 이런 나의 면면이 가장 많이 보이는 자녀는 누구인가요?

아이들의 성격이나 하는 모양새를 보면 둘째 지은이와 넷째 예은이가 가장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를 100배나 뛰어 넘는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9. 올해 반드시 거두고 싶은 집사님 가정의 열매가 궁금해요.

주님의 날을 볼 수 있는 가정입니다. 꽤 오래전 저희 집 심방 말씀이었는데 작년쯤부터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 장막의 축복입니다.

10. 나의 숨소리도 간과하지 않으시며 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집사님과 무엇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새벽예배 드린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큰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시은이가 저의 새벽시간에 협력자가 안되네요. 이 환경을 완벽히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11.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엄마, 주님의 어떤 자녀 일까요?

저는 참 유약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결정 장애가 있고 마음이 약해서 거절 잘 못하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아프고 말지’ 생각하고 쓴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초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잘 도와주지 않는 엄마입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말 해주지만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책임은 네 몫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네요. 저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제가 미련해서죠.

12. 우문현답을 기대하며 질문.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성경에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계란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너스 ~~~~~ ^^

13. ‘나는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이것만큼은 지킨다’ 하는 신앙과 삶의 집사님의 고집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작년에 남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남편사이에서 ‘둘 다 포기할 순 없어요’ 라며 양손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남편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하나님은 저의 신앙의 회복을 볼 일 듯 회복시키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지금이 딱 1년이 되었네요. 주일 말씀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은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제 가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제 신앙과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모티브가 되길 기도합니다.

14. 나와 내 집에서 버릴 것과 소유할 것을 구별하여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창피하지만 저는 참 게으르고 결정장애가 있고 판단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버려야죠. 다자녀인 저희 집은 좀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꼭 소유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15. 아직은 교회에 함께 다니진 못하지만 언젠가는 집사님덕 일곱 식구가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이 꼭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날을 위해 집사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합니다.

16. **종영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남자주인공은 사랑 때문에 결국 목숨을 버립니다. 집사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요?**

드라마를 못 봤네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면서 작별 인사하고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는 동안 신앙의 내적 외적 모습을 아름답게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 믿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라고 고백 한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17. **아침저녁 선득선득하니 겨울로 가고 있음을 느끼네요. 중년에 살고**

있는 이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일찌감치 따뜻한 옷을 꺼내 준비하고 있어요. 집사님은 인생의 겨울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올해가 딱 50살입니다. 백세시대에 반을 살았네요. 저는 올해 참 행복했습니다. 신앙의 담대함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 이기에 많이 감사했고 기뻐서 즐겁게 지냈어요. 저는 저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다가올 겨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쯤 되니까 살아가는 지혜도 감사함도 바라보는 시선도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다른 각도로 이해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인생의 두 번째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것 같아 참 좋네요. 그래서 겨울준비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한가요? ^^

18. **내년에 오를 시급에 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녀 중 벌써 둘이 산업전선에 일할 수 있는 성인인데 집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시급 많이 오르는 게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무리한 요구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영자의 불일치라 생각되고 그 틈에 작은 규모의 기업과 자영업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랄까요? 아무튼 어렵네요.

19. **10월 말씀이 ‘네 소망을 주께 아뢰라’ 입니다. 소망을 아뢰셨는지요?**

네. 올해 꾸준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심방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느 해 보다도 노력했습니다.

20. **올해를 사시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 한 가지 말씀 해 주세요.**

제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가장 감사드려요. 말로만 오직 주님 했을 뿐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풍성합니다. 유치부는 교사와 어린이 수가 거의 1대1 수준일 정도죠~ 지난 한때는 누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야 할지를 놓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도사님께서 많은 시간 기도하시며 고민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며 신중하신 건 마찬가지지만 훨씬 수월해지셨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의 자리가 쉽지 않은 어려운 사역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지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계획하심 아래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둘씩 보조교사로 임명되어 일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자라면서 신앙과 말씀에 싹도 자라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이며 보조가 아닌 정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며 헌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일학교가 한층 젊어지고 활기가 넘치며 더 풍성해진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성장해 온 까닭에 쉽지 않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열정 충만한 우리의 청년 교사들을 칭찬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어려운 환경마저 주님께 다 맡기며 예수님께서서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고 옆에 두시며 사랑하신 것같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주님도 따뜻하게 지켜보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청년 교사들의 수고와 열심이 하늘나라 상급의 첫 열매로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해 주세요~~

당진 순복음 교회를 떠나면서...

안녕하세요. 송미숙 권찰입니다.

2012년 7월 28일 송미정 집사님을 통하여 하영, 하은이가 여름성경학교에 초대되어 데려다 주며 처음 제가 당진순복음교회에 발을 딛었는데요. 성경학교의 개회 예배를 드릴 때였지요. 한 10여년을 세상 속에서만 즐기며 지내온 저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시간 주님께서 주신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들 기도시간에 울격하며 힘들었던 모든 일들과 감사한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계기로 저는 다시 믿음 생활을 아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잠시였나 봐요. 저는 저의 생각과 고집으로 등록 카드를 올리는데도 반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도 그다지 주님께 열정을 드리지 못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았고 즐거웠으니까요. 그러던 중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며 집사님들의 관심과 인도로 에스더 헌신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셨던 이종희 집사님과 많은 다른 집사님들~ 그리고 권찰님들의 섬김과 열정은 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헌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저의 온 몸의 움직임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 해 구역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뒤돌아보니 알게 되더라구요. 장명희 집사님과 희락 구역에서 3년을 동고동락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헌신과 말씀중심의 생활, 절대적인 믿음생활이신 구역장님 옆에 붙여두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저를 훈련시키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올 해는 말씀에 박식하신 구옥순 집사님을 구역장님으로 만나게 해 주시더라구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고 다듬어줄 구역장님으로 만나게 하시며 아직 많은 부분 더 성장하여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며 더 훈련 받아야 한다는 것ですよ. 이곳에 이사 왔어도 제 마음 속의 성령님을 항상 느끼고 있으며 주님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진순복음교회에서의 맡겨주신 모든 사명 내려놓고 올 때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려나? 나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나?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나?'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도 잠깐 했었지만 잘못된 생각인 걸 금방 깨닫고 이곳에서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적응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 잊지 아니하고 더욱 더 성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께서는 짧은 시간의 저를 기억 해 주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첫사랑 회복에 대하여 말씀 하실 때 저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었기에 공감을 못했지만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저에게 첫사랑과 같은 신앙생활은 당진순복음교회의 믿음 생활이었으니까요. 그 첫사랑, 첫 느낌을 놓지 않고 열정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순복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유초등부 소식

주변의 나무들이 가을 옷으로 바꾸어 입고 겨울 준비를 하는 11월입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10월 한달을 어떻게 지내었는지 알려드릴게요.^^ 10월은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3부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첫째주는 성령의 열매 탐구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야외예배가 있었구요.~ 함께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 정말 많이 아쉬웠지만 함께 한 친구들은 공놀이도 하고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주는 열매 수확하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지요? 연초부터 대성전 현관에 세워져 있던 사과나무 말이에요.~ 그 사과 안에는 아이들이 맺고 싶어하는 열매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 사과를 수확해서 연초에 써 넣은 계획과 다짐 등을 읽어보고 자신의 삶이 알맞게 열매 맺었는지 생각하며 기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주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와 아나바다 운동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생일 맞은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진행하고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으로 아나바다도 하며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친구에겐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항상 기도와 협력으로 헌신과 봉사로 섬겨 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의 아이들이 더 즐겁고 건강하게 교회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와 기도지원 부탁드립니다. ^^



감사릴레이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 말씀과 함께 그리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송미숙 권철**입니다. 어느 날 주님을 잘 모르는 남편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불평, 불만이 가득 하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저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준 남편에게 감사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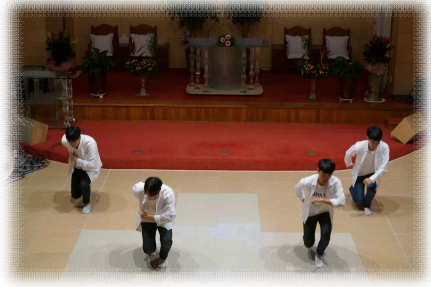
감사릴레이를 통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몇 가지 중 가장 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저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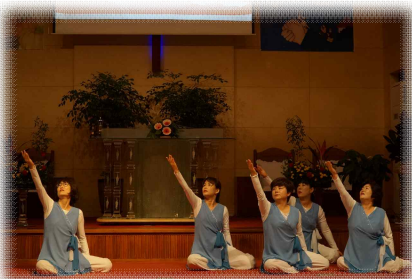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저에게 목사님의 인도와 전도사님의 성경공부를 통하여 아주 조금이나마 성경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내려놓는 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교회 한 부분에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일 먼저 주님께 아뢰이는 믿음과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끝이 없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릴레이로는 우리 교회에 제가 있는 동안 소통하며 함께하지 못하여 아쉬운 **박선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의 감사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을동단 헌신예배





성경 숨은그림찾기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숨은그림: 갈치, 새, 포도송이, 가지, 꽃병]

★ 아이러니

- essay.67 -



* 두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 하디 말라는 일들을 누없이 범하면서 성경 속의 불순종한 모습들을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여기는 나의 모습은 얼마나 '아이러니' 한가?!

권찰회 헌신예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어느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벽보에 세탁물을 맡기신 분들은 옷 수량을 적어 달라는 사과문과 함께 메모할 종이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난 세탁소에 옷을 맡긴 사람들이 맡긴 옷 수량과 연락처들을 적었겠지요?



그런데 몇 번째 줄에는 어느 주민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 맡겼는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 한 사람의 글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도 배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누군가는 금일봉을 전했고 또 다른 누군가도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아파트 벽보에는 세탁소 주인의 감사문이 다시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월남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어렵사리 일구어 온 삶이었는데 한 순간에 이렇게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제게 다시 한번 사람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의 글 한 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실의에 빠진 한 사람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큰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탁소 주인이 도망이나 가서 자기들의 옷을 배상 받지 못할까봐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면 또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선동하는대로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 퍼즐

			① 1		2				
	② 3				③		4		
④			⑤				⑥		5
						⑦ 6			
		7			⑧				
	⑨ 8		9						
⑩					⑪ 10				11
			⑫	12					
⑬ 13				⑭		14		15	
						⑮			

가로

- ①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를 ○○하시니라.
- ②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 ③ 사사 중의 한 사람으로 삼백용사를 뽑아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사람.
- ④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 사랑의 글이 담긴 하나님 ○○~♪
- ⑤ <잠13:20> ○○로운 자와 동행하면 ○○을 얻고~
- ⑥ <요1:29> 보라 ○○ ○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⑦ 하나님 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이라 한다.

- ⑧ 하나님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것.
- 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 ⑩ 가인은 첫 번째 ○○을 저지른 사람.
- ⑪ 이번 수련회 주제는 “나는 ○○ ○○○”이다.
- ⑫ 교회학교가 있는 요일.
- ⑬ 니므롯이 대장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쌓은 탑. 그 이후 외국어가 생김.
- ⑭ 작은 개를 표현 하는 말. “말의 새끼는 망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 ⑮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세로

- 1. 사람이 죽어서 가는 두 곳. ○○ 과 ○○.
- 2.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은? ○○○, 출애굽기, 레위기, ~
- 3.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 4. <마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에 전파 되리니~.
- 5. <엡1:7>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을 받았으니. 비슷한말로 ‘죄용서’.
- 6. 지구가 떠 있는 곳.
- 7.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준 먹을 것으로 꿀 섞은 과자 맛이 남.
- 8.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형은 땅의 소산으로, 동생은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렸다. ○○ 과 ○○.
- 9. 십계명 중 4번째 계명, <출 20:8> ○○○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10. 주님의 날. 비슷한 말로 “일요일”.
- 11.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을 바친 아브라함.
- 12.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에 들어가자 곧 마른 땅 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 13. 애굽의 왕.
- 14.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를 내밀자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졌다.
- 15. 삼손을 유혹하여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여인

특수 학교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이후로 선교사들에 의해 전개된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장애학생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유일한 교육 기관으로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어지기 시작한 특수학교의 우리나라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주며 필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으로 많은 헌법이 제정되어 있다. 기본법, 평등법, 행복 추구권 등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법들이 있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 많은 것들이 무시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교육과 행복을 주기 위해 지어진 교육기관이건만 다른 이면에는 교사나 사회복지무원들에 의해 수많은 학생들이 폭행에 시달리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자들에 의한 성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민을 위한 법은 그들 앞에 무력하기 그지없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더 약한 우리의 아이들은 더욱 보호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약한 그 이유로 더 학대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책임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연일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되어지는 뉴스들을 접할 때 과연 주님의 심장까지는 아니어도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내는 자는 얼마나 될까 의심하게 된다.

지금 주변에는 특수학교에 다녀야할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고 학교는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점점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아이들이 노출 되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 속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처음 하나님의 뜻을 통해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지기 시작한 특수학교가 주님의 심장을 가진 이들의 사랑과 헌신과 사명감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저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하겠다.

*** 결심과 실천에 대한 자아성찰 ***

조은희 권찰 (2번) -

- | | | | |
|---------|--------|--------|--------|
| 1. 100% | 2. 70% | 3. 40% | 4. 25% |
|---------|--------|--------|--------|

*** 이달의 결심과 실천 ***

전수현 권찰

일주일 동안 가정예배 5회 드리기와 하루 하루 감사기도와 회개기도 하기를 결심합니다.

시사용어 Briefing

* 노멀 크러시(Normal Crush)

노멀 크러시는 ‘보통의’ 라는 의미의 Normal과 ‘반하다’ 라는 뜻의 Crush를 결합한 신조어다. 노멀 크러시는 젊은 세대들이 세상이 정해 놓은 화려한 것들(돈, 명예, 권력 등)에 질려 평범한 것에 눈을 돌리는 현상을 일컫는 시사용어다. 사회가 정한 기준보다는 소소하고 평범한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 1코노미

‘1인’ 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긴 새로운 경제 유형을 뜻하는데 혼밥, 혼술, 혼놀, 혼영(영화보기) 등 ‘혼’으로 시작되는 말이 1코노미에 속한다.

* 기회 비용

모든 경제활동 속에서 한정된 자원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선택의 문제로 포기해야 하는 다른 쪽의 가치 중에서 최선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가성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 얼리 힐링 / 뉴노멀 중년

주로 중장년 때 즐길법한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요즘엔 20~30대 때부터 일찍 시작하여 지친 자신을 위로하고, 얼리 힐링(Early Healing)을 한다고 한다. 얼리 힐링족은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현실의 벽과 직면하여 결혼과 육아보다는 사회 속 빠른 적응과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더 우선시하여 일어났다. 반면 40~50대와 50대 중년층은 주로 젊은 세대가 즐기는 취미활동을 시작한다고 하여 뉴노멀 중년(New Normal middle Age) 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스포츠, 공부, 미용 등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중년층을 속하는 시사용어다.

***20 대 80 사회**

20 대 80 사회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그 중 중요한 것은 20이고 나머지 80은 부수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회 이론에 기원을 둔 미래 전망이다. 애초에 '20 대 80 사회'는 20%가 사회 전체에 필요한 대다수의 것을 생산하고 나머지 80%는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보다 비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20 대 80 사회'에서는 20%가 사회의 부 중 80%를 독점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사회의 부 중 20%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1990년 마이클 해머가 제창한 기업 체질 및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리킨다.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이 핵심이 되는 경영 성과의 지표들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여 조직 구조와 업무 방법을 혁신시키는 재설계 방법이다.

***NGO**

NGO는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비정부기구'라고 번역된다. NGO라는 용어는 1950년 2월 UN 경제 사회 이사회에서, 결의안 288조가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국제적인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INGO(International NGO)라고 불리고, 대신 NGO는 비정부적, 비영리적, 비당파적, 공익적,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가진 모든 시민 조직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알파세대(generation alpha)**

어려서부터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세대로 2011년 이후에 태어난 0~8세 영유아를 지칭한다. 이들은 AI 스피커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동요를 듣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받으며 자랐지만 이 세대는 사람과 소통하는 대신 기계와의 일방적 소통에 익숙해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어찌나 공부를 잘 하던지 초등학교 때 그 사람 성적을 앞선 적이 없다. 어린 마음에 '저 애와 결혼하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변하지 않았다. 고교 졸업 직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 했을 때는 연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고1 때부터 펜팔 친구로 지낸 우리는 편지를 엄청나게 주고받으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 소위로 임관한지 얼마 안되 오른손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 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렇지만 머리와 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을 보려면니 덜컥 겁이 났다.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녀를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머릿속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첫째, 나를 본 순간 놀라 도망 칠 것이다.

둘째,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엉엉 울 것이다.

셋째, 기가 막혀 멍하니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 가슴이 미어질 것만은 확실했다. 연락하지니 두렵고 안하자니 보고 싶고.... 하지만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지라 힘들게 연락을 했다. 그녀가 왔을 때 내 왼손엔 링거가 꽂혀 있고 오른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양손을 쓸 수 없어 어머니가 떠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고향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산도라지 꽃 색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의 그녀가 통합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 모습이 눈부시게 예뻐다. 그런 그녀가 날 본 뒤 아무 말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맞았다. 병실 안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 어머니는 밥을 먹여주다 멈췄고, 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피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 탓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존심보다 더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나~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했다. 불쌍해 보일 내 처지보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딱해 보이는지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다. 날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어야 하는데 누가 나만큼 사랑해 줄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없이 바라만 보기를 30분째... 용기를 내어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두 번 끄덕였다.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천사 같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이보다 기뻐까~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정말 그때 느꼈던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왼손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을 텐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만 보내줘야 한다. 나는 '얼굴 봤으면 이걸로 끝내자'는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진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모태 신앙인 아내는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링거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이후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아내는 지금까지 매일 소중한 조언을 해 주고 있다. 사업상 힘들 때도 꼭 아내와 상의 한다.

'백발백중' 명답을 말해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산다...?

힘들게 역경을 거치며 상당한 나이임에도 머무름 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기에 무언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기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가슴 뭉클한 거짓말 같은 실화이며 지고지순의 고결스런 인간 승리의 한편 드라마 같습니다.

전 KTF 부사장과 애경산업 이사를 지낸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 조서환씨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펴온 글입니다.

* 유용한 건강 상식 알아두기 *

1. 피곤해서 잠이 잘 안 올 때

건강한 사람의 피는 대개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긴장이나 피로 등으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피까지 산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식초가 효과가 있다. 식초를 한 숟가락 떠서 마시면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생긴 찌꺼기를 태워 피로가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 소화가 잘 안될 때

과식의 경우엔 파인애플을 먹는 것이 좋다.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 보통은 감, 귤, 생강주스가 좋다.

3. 목에 가시가 걸리면

식초 물로 몇 번 양치질을 하면 가시가 부드러워져서 내려간다. 그래도 잘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숨을 멎쳐서 긴 실에 매달아 삼켰다가 꺼내면 빠져 나온다.

4. 멀미가 나고 구역질이 나면

생강차 한 컵을 마시면 멀미를 예방할 수 있다. 손가락 크기의 신선한 생강을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썰어 설탕과 함께 잔에 넣은 뒤 끓는 물을 붓고서 5분쯤 우려내서 마신다

5. 감기에 걸렸을 때

배를 얇게 썰고 여기에 꿀을 넣어 은근한 물에 끓여서 낸 물을 뜨겁게 마시고 자면 다음 날 기침도 가라앉고 목의 통증도 사라진다.

6. 가래가 심하면

구기자를 1회에 1~2근을 물 5홉으로 달여서 차로 마시면 좋다. 또 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낸 다음 물엿과 적당히 섞어 마셔도 된다.

7. 알레르기 비염엔

느릅나무를 씻어서 감초랑 술에 넣고 물2 느릅나무1로 푹 곤다. 3분의 2정도 줄어들 때 국자로 떠보아서 국물이 걸쭉하면서 미끈미끈한 액체가 될 때까지 곤다. 식혀서 수시로 마시거나, 비염이 심하면 빨대를 코에 대고 들이 마신다. 처음에는 코 속에 상처 때문에 좀 아프더라도 참고 몇 번 하면 좋아진다.

8. 코가 막혔을 때

뜨거운 물수건을 코와 이마 사이에 올려놓고 막힌 쪽이 위를 향하도록 누워 있으면 뚫린다. 양파 즙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유자차나 과일차를 뜨겁게 마셔도 좋다. 또 콧속을 가볍게 비벼서 콧구멍에 잠깐만 넣어두면 거짓말같이 뚫린다. 물구나무서기도 한 방법이다.

9. 콧속에 물이 남아 있을 때

화장지를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만들어 물이 들어간 콧속으로 살살 돌리면서 끝까지 집어넣는다. 그러면 물이 순간적으로 휴지로 만든 실 끝에 흡수돼 간단히 해결된다.

10. 피부에 가시가 박혔을 때

깊이 박혀 족집게나 바늘로는 좀처럼 빠지지 않을 경우 고약을 바른단. 고약이 가시를 빨아낼 뿐만 아니라 열과 통증을 없애주므로 좋다. 또 부추를 짓이겨 3~4회 갈아 붙여주면 가시가 뽕족이 솟아오른다.

11. 발 냄새가 심할 때

10원짜리 동전을 신발 바닥에 깔면 효과가 있다.

12. 찰과상을 입었을 때

상처 주위를 깨끗이 닦아내고 그 위에 날달걀 껍데기를 붙인다. 그런 다음 숨으로 감싸고 붓대로 감아준다. 이렇게 하면 다소 깊은 상처라도 곪지 않고 깨끗이 낫는다.

13.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날 때

발바닥에 물파스를 바른다. 발바닥은 정신성 발한(긴장했을 때 나오는 땀)의 급소다. 물파스가 대뇌에 있는 발한 중추에 작용하여 전신의 발한 작용을 억제시켜 준다.

요셉(Joseph)

관련인물 >>[\[야곱\]](#) [\[예수\]](#) [\[마리아\]](#)

뜻 : 여호와가 더하시기를 바란다

요셉이라는 뜻은 "그는 더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며 야곱의 열 한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성품이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만득자로 얻은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열한단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말함으로써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날로 더해갔습니다(창37:3-11).

그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형들의 목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때에 형들이 의논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르우벤의 제의에 따라 구덩이에 넣게 되었으며 다시 유다의 제의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20을 받고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포함되고 있음을 그림 보듯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끈기있게 유혹하였으나 단호하게 거절하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고통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첩경이 되었습니다. 자기가족을 애굽 고센땅에 이주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애굽의 국장같이 치렀고 요셉도 1백10세에 세상을 떠났으나 모세가 그 유골을 들고 나와 세겜에 안장되었습니다(여24:32).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충성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든 유혹을 물리쳤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유머

1. 가장 억울한 도형은? = 원통
2. 신발이 하나면? = 신발끈
3. 차를 발로차면? = 카누라유
4.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중학교는? = 로딩중
5. 아몬드가 죽으면? = 다이아몬드
6. 세상에서 제일 야한 채소는? = 버섯
7.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면? = 신내림
8. 스님도 따라 내리면? = 중도하차
9.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 글로벌
10. 새우가 출연한 드라마는? = 대하드라마
11. 세상에서 가장 긴 기름은? = 참기름
12.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렛은? = 가나 초콜렛
13.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도시는? = 분당
14. " 나는 다섯살이 아니야! " 를 다섯글자로 하면? = 오세아니아
15.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 태양초고추장>초고추장>고추장
16.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 190,000(십 구만)
17.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 천도복숭아
18. 제일 비싼 새는? = 백조
19. 손가락은 영어로 핑거, 그러면 주먹은? = 오므린거
20. 야구선수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뭐라 했을까?

= 송구하옵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기관정기총회 / 11월 5일~17일
2. 기관계획서제출 / 11월 12일~25일
3.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 11월 18일 오후6시
4. 교회김장 / 11월 19일~20일
5. 어머니교육세미나 / 11월 22일~23일 오전11시

◎ 공지사항

1. 11월생활실천표어 / 풍성함으로 네 집에 채우라

◎ 이달의 교우소식

1. 이사심방 / 송미숙권찰 - 11월 13일(화) 오전11시
이영선집사 - 11월 16일(금) 오전11시
2. 군휴가 / 이성재청년 - 11월 10일~16일
3. 새가족등록 / 전이경집사 11월 4일 - 리브가여선 은혜구역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중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